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4호](2013.12)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진여원 미래는 밝다. 청년들, 변론대회에서 이타정신과 부동의 각오 밝혀!

진여원의 미래에 밝은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진여원을 짊어지고 나갈 꿈 많은 청년들의 변론대회가 11월 27일 11시 서울 포교소에서 개최됐다. 서울에서 네 번째 개최된 이번 변론대회에서는 “한마음”이라는 주제로 4명의 청년들이 그간의 개인적인 생활체험과 가르침을 깊이 해 나가겠다는 부동의 각오를 맹세했다.

가르침하기 이전에는 심적인 고민들이 많았으나, 정진을 하면서부터 나날이 발전해 가는 내면의 변화과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 범당 분위기를 매우 진지하고 감동이 넘치게 만들었다.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감동의 박수가 어우러진 변론대회를 통해 청년, 장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타의 실천을 통한 상락아정의 인생을 만들어나갈 것을 맹세했다.



가르침이 자신과 주위 모두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다는 이현하 청년에게는 동감의 박수가 쏟아졌다. 구지연 청년은 “회사 사장과의 갈등으로 이직까지 고려한 후 점심수행을 충실히 해 관계를 개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 유학 온 우와보케이타 청년의 한국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로 아버지의 병이 개선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지연 청년은 용기의 박수를 받았다.

진여원 봉사부, 연제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진여원은 부산정사가 건립되는 연제구에서 개최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11월 23일 연제구청 구내식당 앞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어려운 이웃 500여 세대 겨울 밀반찬 김치지원을 위한 활동으로서 진여원을 비롯해 연제구청, 연제이웃사랑회, HCN부산방송, 여성자원봉사사회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거제교회, 부산은행, 농협, (사)사랑의 손길, 대한웰니스병원 등이 참여했다.



[제4회 변론대회] ① 이현하

- 함께 이야기 하고, 함께 정진을 각오하는 부산 청년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긴장됩니다만, 제가 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진여원 가르침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청년회활동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작은 실천내용과 각오를 공유하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지난 달, 대승 본에 자에 처음 앉게 되었습니다.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는 믿는 마음이 강하니까 상승할거야' 라는 자만심이 생겨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지 못한 것에 실



망하여 '절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상승하였다면, 상승하지 못해 실망한 청년의 마음을 알아주며 바르게 마음을 바꾸어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경험이 없을 것이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다. '분명 앞으로 값진 경험일 것이다' 라는 주위 청년들의 격려에 "그래,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을 내자!"라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정진은 저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면을 긍정적이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 모습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하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 다짐했습니다. 고민 하던 중 생각해 낸 것은 금연이었습니다. 저는 8년 넘게 흡연을 해왔으나 한 번도 금연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고 정진

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 '개조께서도 애연가셨지만 가르침과 신도 분들을 위해 금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도 이타행이라 생각하고, 독하게 결심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일 돕기입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부탁하셔야만 도와드리는 수동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하기로 각오를 세우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담은 독경 정진입니다. 아침독경은 물론이고 저녁 독경 또한 하지 않았던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기도가 담긴 독경을 하

자는 각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오와 실천을 하다보니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과 이타행이 제 마음을 바꾸어 정진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달 청년일여기념에서 '남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자신과 주위 분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가르침은 주위 분들과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win-win의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내년 청년회 60주년과 접심도량 복건, 부산정사 낙경이라는 큰 이벤트를 향해 더 단단히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고, 정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 종정스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위 청년들과 공유, 한 마음으로 종정스님께서 바라시는 우심세계로 손에 손을 잡고 정진할 것을 종정스님께 맹세합니다. **"함께 이야기 하고, 함께 정진해 갑시다"**.

[제4회 변론대회] ② **구지연** : 감사와 기쁨의 한마음으로 정진을 단단히 각오하는 서울청년

저는 2009년 10월 입신 후 2012년 2월부터 다시 가르침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홍콩 청소년 아시아 모임(YAG)에 참석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각국 청년들의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어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청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더 적극 봉사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는 영언에 그제야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맘을 다잡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만둘 때까지는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맘을 바꿔 다시 시작한 회사생활이었으나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동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한동안 계속 반복되는 야근에, 일요일까지 반납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짜증도 났지만 불평하지 않고 단단히 실천하도록 노

그러던 어느 날 점심에서 “회사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호마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사장님의 오해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다음부터 안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는 핀잔뿐이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사사건건 저에게 불만을 표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꾸중하시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도 모르게 새로운 직원채용공고를 내고 면접까지 보게 된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회사를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구 보리를 해보았지만. “어느 회사를 가든 또 다른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너만 힘든 것은 아니다. 불평을 안할 뿐 다들 너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고 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말들에 제 마음은 더 답답해져 갔습니다.

고민이 깊어가던 중 점심에서 “당신은 세 가지 실천 중 봉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력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사장님 눈빛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따뜻해진 말투로 저를 대하시고, 그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웠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아!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다른 사람은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만 했구나’ 라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랍고 신기한 마음이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 종정스님께서 쏟아주시는 참마음에 대한 감사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반성이 가르침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핑계로 한발 내딛는 것을 망설이는 저이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구제의 손을 펼쳐주시는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 종정스님께서 신뢰해 주시는 청년으로서 참마음을 바르게 이어받아 진심을 담은 감사와 기쁨으로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제4회 변론대회] ③ **우아보케이타**

한국어와 일본어로 영언을 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다

저는 대학 2년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때까지 18년 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르침을 하고 계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습

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해 꾸준히 정진해왔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즐겨보시는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고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고교 1학년 때 도쿄에 있는 한국학교에 전학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못 가게 됐지만, 대학은 꼭 한국에서 다니겠다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교 2년 때 수학여행 온 한국에서 그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대학 입학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만, 선생님과 부모님께 설득당해 목표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국대학을 가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

에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몇 차례 설득한 끝에 이윽고 허락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어학당이라는 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대학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드디어 대학에 입학

했습니다. 고교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은 개조, 영조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

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이 결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학당 시절에는 겪지 못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꿈꿔왔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 종정스님께서 보살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와 일본어로 접시를 할 수 있는 영능자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변론대회] ④ **최지연** : One Heart의 마음으로 따스함을 전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다

15년 전 중학생 때 가르침과 맺어졌습니다. 잘 몰랐지만, 인도자와 함께 놀러가는 듯 절에 오는 것이 좋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으며, 알게 모르게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의 따스함에 안기는 듯 했습니다.

2000년 종정스님께서 한국에 오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 때 부채춤 장면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청년회를 즐겁게 다니게 된 계기는 그때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종정스님에



대해선 잘 몰랐으나, 작은 체구에도, 따스함이 넘쳐흐르는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극적인 제가 ‘만약 가르침과 맺어지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만약 가르침을 몰랐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가르침을 하면서부터 제 자신을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러자 가르침 및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때 ‘왜 우리 아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며 매일이 힘겹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독경을 올리고 귀가하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과 집안일을 도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기도하는 곳 어디라도 함께 해주시

고, 응원과 격려 그리고 받고대수를 쏟아주시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앞으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왜 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의 따스함도

잊게 되고 매일의 생활이 힘들고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점심에서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개조, 영조계선 모든걸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영언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청년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이타마 슈퍼아리나에서 종정스님께서 “앞으로 진여원은 청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아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힘들어 하는 청년이 있다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굳은 각오를 세웠습니다.

복건 점심도량 낙경, 상 참배, 한국 첫 정사 낙경, 청년회 6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에는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청년회활동, 부모님과 주위 분들에게 기쁨을 전달, 미래 청년을 위한 영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정스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청파동 칼럼>
천재지변과 우리들의
기도(정경숙)

청년대표 4명,
 아시아 청년연례모임 참석

일본 동북(산다이)지방을 휩쓸고 간 쓰나미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태풍(하이엔)이 몰아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필리핀 레이테 섬의 폐허가 된 거리(타클로반)를 보며, 또 다시 충격과 슬픈 마음의 애상에 잠긴다.
 부모, 형제와 가까운 사람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갑작스런 재앙으로 가족과 친지를 남기고 떠난 이들의 영혼들,
 그 비탄(悲嘆)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어떻게 해야 망자의 넋을 구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루의 시작을 讚題(산다이)를 독송하며 일상을 살고 있는 본인은 늘 감사 속에 부처님의 가호를 빌며 산다이를 외운다.

천재지변으로 생을 마감한 자와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 속에서 일심으로 기도 올리는 일일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명복과 고통의 신음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드리고 싶다.

“나무진여일여대반열반경(나무 신묘이치노 다이하즈네향교)”

어느 신문의 한 사설란에 필리핀의 비극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우리는 지구라는 어머니의 품속에 사는 똑같은 생명이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다” 라며 대중을 향해 호소하는 글을 읽으면서 신앙을 바탕으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진여원 아시아지역 11개국 청년 대표들이 지난 11월 8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청년리더육성’이라는 취지하에 우심세계를 구축하고 신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연례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대표가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매년 아시아 국가를 돌아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내년 2014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고난에 빠진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제하는 것임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이웃을 위해 찬제(산다이)를 독송하라. 한 글자에 천리의 공덕이 담겨있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독송하는 讚題(산다이)가 고난과 비통해 빠진 사람들을 위해 위력을 발휘해주리라 믿는다.

갑자기 불어 닥친 지구의 대재앙의 비극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태풍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보내고 싶다.

<칼럼은 진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